

중국 카작족 존댓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김우진*

1. 서론

존댓말은 한국어를 비롯하여 지구상의 일부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언어 예법으로서 해당 문화의 중요한 특징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류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자바어, 일본어, 한국어의 존댓말이 잘 알려져 있는 편이고, 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Geertz(1960), Wolff & Poejosoedarmo(1982), Errington(1988)의 자바어 존댓말 연구, Inoue(1979), Ide(1982)의 일본어 존댓말 연구, Wang(1984)의 한국어 존댓말 연구 등이 있다. 이 글은 중국 신강(新疆) 지역 카작족¹⁾ 촌락 사회에서 수행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카작어 존댓말의 구조와 사용 원리를 기술하

* 서울대학교 인류학 석사.

1) 민족 명칭인 ‘카작’은 영어에서는 대개 Kazakh이라고 표기하고 한글 표기는 ‘카자흐’, ‘까자흐’, ‘카자크’ 등 여러 형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최대한 원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카작’으로 일관되게 표기하였다.

고자 한다.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카작족은 카작스탄 공화국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신강 지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 분포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유목민족이며 총 인구 수는 약 1천만 명에 달한다. 카작족이 분포하는 지역은 과거의 공산진영(구소련, 중국, 몽골 등)에 속하여 이들의 문화에 대한 한국이나 기타 서방 학자들의 인류학적 연구²⁾가 매우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또 카작족의 문화를 다룬 소수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 방식이나 사회 조직에 관한 고찰에 편중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와 같은 규범, 언어, 지식, 예절 등 추상적인 관념의 영역에 대한 경험적인 접근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존댓말의 구조와 사용 원리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였다. 카작어의 존댓말에는 대화시 청자 (addressee)에 대한 거의 모든 언급에서 존칭 혹은 평칭의 선택이 강제된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청자에 대한 언급에는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및 호칭, 청자를 주체로 하는 행동이나 상태, 청자의 소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2인칭 대명사에는 물론이고, 2인칭 대명사가 주어인 문장의 술어(predicate)에 반드시 청자에 대한 존경 여부가 표시되는 것이다. 카작어 존댓말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단순히 존칭과 평칭의 여러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언어적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들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선택·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화적인 지식을 수반한다. 즉 적절한 존댓말 사용의 규칙은 카작족 사회의 성원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지식이며, 이것은 바로 말하기의 민족지학(ethnography of speaking)(Hymes 1962; 1974)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화를 공유된 의미의 체계 내지 지식의 체계라고 규정한다면, 존댓말과

2) 카작족 및 카작 문화를 다룬 소수의 연구로 Murdock(1934), Hudson(1938), Krader(1963), Bacon(1966), Benson and Svanberg(1988; 1998), Svanberg(1999) 등이 있다.

같이 모든 사회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특수적인(culture-specific) 지식의 범주는 해당 문화의 전체적인 특징과 성격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작어 존댓말의 구조를 파악하고, 실제 대화에서 존댓말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수들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러한 사회적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즉 사용의 규칙)를 규명함으로써, 카작족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 글은 2005년 4월 16일부터 동년 8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중국 신강(新疆)의 이리(伊犁) 카작 자치주 곽성현(霍城縣) 과자구향(果子溝鄉)에 위치한 알말르사이(Almal'say, 15가구)와 밍쑹쿠르(Miñšunqur, 20가구)라는 두 유목 촌락에서 수행한 민족지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국 신강지역 카작족의 존댓말의 구조와 사용 유형”(2006)을 수정, 요약한 것이다. 자연 대화 상황에서 존댓말 표현이 사용된 250여개의 발화 사례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본 자료로 하여 카작어 존댓말의 구조와 사용 규칙을 도출하였다.

2. 카작어 개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카작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개관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우선 카작어는 유형적으로 교착어(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이며, 계통적으로 투르크어족(Turkic language family)에 속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카작어의 음운, 형태, 통사적 특징들은 여타 투르크 제어(諸語)와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먼저 카작어의 음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1>과 <표-2>는 카작어의 모음과 자음이다. 아래 표들에서 각 모음과 자음의 표기는 Johanson & Csató, *The Turkic Languages*(1998)에서 사용된 카

작어 표기 방식을 따른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을 일관되게 준수 하였다.

〈표-1〉 모 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모 음	i	ü	ĩ	u
저 모 음	e, æ	ö	a	o

〈표-2〉 자 음

	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파열음	b, p	d, t		g, k, q	
마찰음	f	z, s	ʒ, š	ʎ, ʣ	h
비음	m	n		ŋ	
유음		r, l, ł			
활음	w		y		

위의 표에서 보듯이 카작어에는 5개의 전설모음(æ, e, i, ö, ü)과 4개의 후설모음(a, ĩ, o, u)이 있는데, 이러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대립을 기준으로 하는 모음조화(vowel harmony)는 카작어의 매우 특징적인 음운현상이다. 즉, 카작어에서 한 단어의 모음들은 모두 전설모음이거나 모두 후설모음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대립은 자음에도 영향을 주어, 카작어의 k와 g는 오직 전설모음과 함께, q와 ʒ는 오직 후설모음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특정 자음의 출현이 각각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을 이른바 ‘자음조화(consonant harmony)’(Poppe 1965)라고 한다. 그밖에 유성 자음과 무성 자음의 구분에 의한 자음동화(consonant assimilation) 현상이 일어난는데, 특히 순행 유성음화가 대표적이다.

형태면에서 카작어는 전형적인 교착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단어

의 문법적인 기능은 어간에 각종 접미사를 부착함으로써 표시된다. 어간은 여러 접미사와 결합하여 길게 확장될 수 있는데, 굴절어와 달리 어간과 접미사가 결합되는 데 있어서 어간의 내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각 접미사들은 그 고유의 단일한 기능만을 수행한다. 접미사의 배열순서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파생접미사는 굴절접미사에 선행한다. 어간 말음과 접미사 두음 사이의 음운변화나 탈락 현상을 제외하면, 카작어의 접미사는 매우 기계적으로 어간에 결합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명사의 곡용은 ‘명사어간 + 복수 + 소유인칭 + 격’의 순서이고, 동사의 파생 또는 활용은 ‘동사어간 + 태 + 부정 + 상 + 법 + 시제 + 인칭 + 의문’의 순서이다. 카작어에서 아무런 접미사가 결합되지 않은 동사어간은 2인칭 단수 명령형(imperative)이 된다.

통사면에서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하며, 문장의 기본 어순은 ‘주어 + 목적어 + 술어(SOV)의 형태이다. 문장성분들 간의 통사적 관계는 주로 어순보다는 격(case)에 의해 결정된다. 카작어의 격(절대격, 속격, 대격, 여격, 처격, 탈격)은 격접미사(case suffix)에 의해 표시된다. 소유관계를 표현하는 ‘수식어 + 피수식어’ 명사구에서 선행하는 수식어는 소유의 주체, 뒤따르는 피수식어는 소유의 대상이 되는데, 이 때 수식어에는 속격 접미사(genitive case suffix)가 결합된다. 예컨대 *attıj basi* “말의 머리”는 *at* “말” + *tıj* “의”(속격 접미사) + *bas* “머리” + *-i* “그의”(3인칭 소유접미사)로 분석될 수 있다. 카작어의 문장이나 절에서 주어는 종종 생략된다. 술어는 명사술어와 동사술어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술어는 주어의 인칭을 표시하는 술어접미사(predicative suffix)를 수반한다. 가령 명사술어문인 *Men muƣalimmin* “나는 교사이다”는 *mer* “나” + *muƣalim* “교사” + *-min* “나는...이다”(1인칭 술어접미사)로 분석되고, 동사술어문인 *Sen qayda barasıj?* “너는 어디 가느냐?”는 *ser* “너” + *qayda* “어디” + *bar* “가다” + *-a* (현재) + *-sıj* “너는하다”(2인칭 술어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다.

카작어는 넓은 지리적 분포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른 방언의 차이는 미약한 편이나, 크게 북부방언과 남부방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중국 신장 지역에서 사용되는 카작어는 남부방언에 속하여, 카작스탄에서 표준으로 삼는 북부방언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Benson & Svanberg 1998: 173). 카작어의 표기에 있어서 현재 카작스탄 공화국에서는 키릴문자를, 중국에서는 아랍문자를 사용하고 있다.³⁾

3. 존댓말의 구조

카작어에서 존경의 표시는 크게 다음의 4가지 언어표현 범주에서 이루어진다: (1)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 (2) 소유 접미사(possessive suffix), (3) 술어접미사(predicative suffix), (4) 호칭어(term of address). 필자는 이 네 가지 범주 안에서 존칭과 평칭의 어형이 구별되는 영역만을 묶어 그것을 카작어의 ‘존댓말 언어목록(honoric speech repertoire)’이라고 부르려 한다. 이 장에서는 카작어 존댓말 언어목록을 구성하고 있는 표현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표현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는지, 즉 목록들간의 공기관계(共起關係, co-occurrence)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다루는 존댓말 언어목록들은 모두 대화시에 화자(speaker)가 청자(addressee)를 존대(혹은 평대)하는 언어표현들이다. 카작어에서 대

3) 카작어와 투르크 제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소개는 Kirchner(1998)과 Johanson(1998)을 참고할 것.

4) Ervin-Tripp(1972)은 언어 목록 중에서 특정한 요소들이 선택되고, 요소들 간의 특정한 결합만이 허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교체(alternation)’와 ‘공기(co-occurrence)’라는 두 가지 축의 사회언어적 규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이론을 카작어 존댓말의 사례에 적용한다면, 가령 존대의 표시 여부에 따라 2인칭 대명사의 존칭과 평칭 중 어느 한 형태가 선택되는 현상은 ‘교체’에 해당하고, 한 문장에서 주어와 존칭 대명사일 때 술어접미사도 존칭이 사용되는 현상은 ‘공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화 당사자 이외에 언급되는 대상을 존대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수의 어휘적 표현들은 이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⁵⁾ 또한 카작어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존대를 해야 하는 관계일지라도 모든 문장에서 존경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설명될 존댓말 언어목록을 제외하면 카작어의 문장은 대부분이 존대나 평대의 구별이 없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존대 혹은 평대의 구분이 일어나고 그 대상이 대화시의 청자가 되는 언어 표현들만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인칭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는 공히 문법적 범주이고, 호칭어는 어휘적 표현이다. 세 가지 문법적 범주들의 일차적인 기능은 인칭(person)의 표시인데, 1인칭과 3인칭을 제외하고 2인칭에서만 존대와 평대의 변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2인칭 대명사에서 존칭 2인칭 대명사와 평칭 2인칭 대명사가 구분되고, 2인칭 소유접미사에서 존칭 2인칭 소유접미사와 평칭 2인칭 소유접미사가 구분되며, 2인칭 술어접미사는 존칭 2인칭 술어접미사와 평칭 2인칭 술어접미사로 구분되는 것이다. 먼저 카작어에서 존경이 표시되는 이들 세 가지 문법적 범주들을 하나씩 살펴본 뒤, 어휘적 표현인 호칭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인칭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

인칭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는 모두 카작어에서 존대가 표시되는 문법 범주들이다. 이 세 가지 범주들의 일차적 기능은 인칭(person)의 표시이며, 부차적으로 수(number)와 존경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존경의 표시는 2인칭에서만

5) 카작어에서 대화시 청자가 아닌 언급대상을 존대할 수 있는 표현, 즉 지칭자 존대의 표현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adam“사람”/kisi“분”의 표현이 있다. 원래 “순남”을 의미하는 kisi는 평대의 표현인 adam“사람”에 대응하는 존대 표현으로 사용된다. 말하자면 adam은 3인칭 평칭, kisi는 3인칭 존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seniŋ ækeŋ qaydan kelgen adam? (네 아버지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seniŋ ækeŋ qaydan kelgen kisi? (네 아버지는 어디서 온 분이냐?)

이루어진다. 즉 2인칭 대명사, 2인칭 소유접미사, 2인칭 술어접미사가 존댓말 언어목록에 포함되는 것이다. 인칭, 수, 존경 여부에 따른 카작어의 인칭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의 여러 형태들을 도표화하면 다음(표 3 ~ 7)과 같다.

〈표-3〉 인칭대명사

		단수	복수
1인칭		men	biz
2인칭	평칭	sen	sender
	존칭	siz	sizder
3인칭		ol	olar

〈표-4〉 소유접미사

		단수	복수
1인칭		-m, -im, -im	-miz, -imiz, -miz, -imiz
2인칭	평칭	-ŋ, -iŋ, -iŋ	-ŋdar, -iŋdar, -ŋder, -iŋder
	존칭	-ŋiz, -iŋiz, -ŋiz, -iŋiz	-ŋizdar, -iŋizdar, -ŋizder, -iŋizder
3인칭			-si, -i, -si, -i

〈표-5〉 술어접미사 - A형

		단수	복수
1인칭		-mın, -bın, -pın, -min, -bin, -pin	-miz, -biz, -piz, -miz, -biz, -piz
2인칭	평칭	-siŋ, -siŋ	-siŋdar, -siŋder
	존칭	-siz, -siz	-sizdar, -sizder
3인칭			∅, -di, -di

〈표-6〉 술어접미사 - B형

		단수	복수
1인칭		-m	-q, -k
2인칭	평칭	-ŋ	-ŋdar, -ŋder
	존칭	-ŋiz, -ŋiz	-ŋizdar, -ŋizder
3인칭		∅	

〈표-7〉 술어접미사 - C형

		단수	복수
1인칭		-yīn, -yin, -ayīn, -eyin	-yīq, -yīk, -ayīq, -eyīk
2인칭	평칭	∅	-ŋdar, -iŋdar, -ŋder, -iŋder
	존칭	-ŋiz, -iŋiz, -ŋiz, -iŋiz	-ŋizdar, -iŋizdar, -ŋizder, -iŋizder
3인칭		∅, -di, di	

위의 표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칭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는 공통적으로 2인칭에서만 존칭과 평칭의 형태적 변별을 갖추고 있다. 1인칭과 3인칭은 그러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하의 설명에서는 편의상 2인칭 존칭대명사는 ‘존칭대명사’로, 2인칭 평칭대명사는 ‘평칭대명사’로, 2인칭 존칭 소유접미사는 ‘존칭소유접미사’로, 2인칭 평칭 소유접미사는 ‘평칭소유접미사’로, 2인칭 존칭 술어접미사는 ‘존칭술어접미사’로, 2인칭 평칭술어접미사는 ‘평칭술어접미사’로 줄여 부르기로 하겠다.

먼저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를 살펴보면, 존칭/평칭이 구분되는 2인칭 대명사의 평칭 단수 *sen* “너”, 평칭 복수 *sender* “너희”, 존칭 단수 *siz* “당신”, 존칭 복수 *sizder* “당신들” 등 4가지 형태가 존댓말 표현에 해당된다. 이들은 1,3인칭의 대명사와는 달리 발화시에 존칭과 평칭 중의 선택이 강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Brown의 T/V 모델⁶⁾과 비교

6) Brown과 Gilman(1960)은 유럽 제어(諸語)의 2인칭 대명사가 이른바 ‘T형’과 ‘V형’의

한다면, 대체로 *sen*으로 대표되는 평칭대명사는 유럽어의 ‘T형’에, *siz*로 대표되는 존칭대명사는 유럽어의 ‘V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2인칭 대명사는 뒤에서 설명할 술어접미사와 더불어 카작어 존댓말의 핵심적 문법 범주이다.

소유접미사(*possessive suffix*)는 카작어의 특징적인 문법 범주의 하나로서, 명사의 뒤에 결합되어 명사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접미사이다. 엄밀히 말하면 소유 인칭 접미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소유접미사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meniŋ dæpterim“나의 공책” => *meniŋ*“나의”(1인칭 단수 대명사 속격) + *dæpter*“공책”(피소유 명사) + *-im*“나의”(1인칭 소유접미사)

이 예에서 앞의 *meniŋ* “나의”를 생략하고 간단히 *dæpterim* 이라고 하여도 의미는 역시 “나의 공책”이다. 소유 주체의 인칭을 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기능으로 하는 소유접미사는 위의 <표-4>에서 보이듯이 그 종류가 모두 7가지인데, 그 중에서 존칭과 평칭의 변별을 갖춘 2인칭 소유접미사 4가지가 존대 표현의 범주에 속한다. 2인칭 소유접미사가 사용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seniŋ basiŋ“너의 머리” => *seniŋ*“너의”(2인칭 단수 평칭 대명사 속격) + *bas*“머리”(피소유 명사) + *-iŋ*“너의”(2인칭 단수 평칭 소유접미사)

sizdiŋ eškiŋiz“당신의 신앙” => *sizdiŋ*“당신의”(2인칭 단수 존칭대명사 속격) + *eški*“신앙”(피소유 명사) + *-iŋiz*“당신의”(2인칭 단수 존칭 소유접미사)

두 부류로 대별되고, 이 두 형태 사이의 선택은 힘(*power*)과 유대감(*solidarity*)이라는 두 차원의 사회적 변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호칭어 연구의 대표적인 이론 모델이 되고 있다. 존댓말 연구의 시각에서 보면 이 모델에서 제시된 ‘V형’ 인칭대명사가 존대 표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카작어 존댓말 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2인칭 대명사 *sen*과 *siz*는 유럽 제어의 T와 V 패턴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명사의 앞에서 인칭대명사 속격이 생략되더라도 이들 소유접미사가 소유 관계를 표시하므로, 카작어는 명사의 소유 표시에 대한 문법적 강제성이 비교적 높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또 2인칭의 소유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존칭과 평칭의 선택이 문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유접미사는 출현 빈도가 비교적 높은 문법 범주로서 존댓말 언어목록의 중요한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술어접미사(predicative suffix)는 전술한 소유접미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접미사이며, 일반적으로 “personal marker” 혹은 “subject representative”라고 불리는 카작어의 특징적인 문법 범주이다. 술어접미사는 문장이나 절의 술어에 결합되어 주어의 인칭을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명사, 동사, 형용사에 모두 결합될 수 있지만 통사적으로는 문장이나 조건절의 술어에만 결합되고, 의문문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언제나 문장이나 절의 가장 말미에 위치하는 특성이 있다(명사 술어에 결합될 경우에는 계사의 기능까지 담당한다). 술어접미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크게 A, B, C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표-5, 6, 7 참조). 우선 B형은 과거시제 문장이나 조건절의 술어와 결합되고, C형은 명령형(imperative) 술어에 결합된다. A형은 여타의 모든 동사 술어와 명사 술어에 적용된다. 술어접미사의 경우도 존칭, 평칭의 구분은 2인칭에서만 나타난다. 이들 2인칭 술어접미사의 존칭/평칭 및 단수/복수의 변이형들이 카작어 존댓말의 또 다른 핵심 요소가 된다. 다음은 2인칭 술어접미사가 사용된 예이다.

bardıŋ“너는 갔다” => bar“가다”(동사) + -dı(과거시제) + -ŋ“너는...한다”(2인칭 평칭 단수 술어접미사)

bardıŋız“당신은 가셨습니다” => bar“가다”(동사) + -dı(과거시제) + -ŋız“당신은...하신다”(2인칭 존칭 단수 술어접미사)

투르크어족에 속하는 카작어는 Brown 모델의 기초가 되었던 유럽

제어(諸語)와 달리, 문장에서 인칭대명사 주어의 생략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생략된 주어의 인칭을 술어접미사가 나타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어 인칭의 의무적인 표시는 카작어 문법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이며, 특히 2인칭의 경우 술어접미사에서 존칭과 평칭의 선택이 강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마도 카작어 존댓말의 여러 표현들 가운데 문법적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술어접미사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문법 범주의 어형들 중 존대와 평대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2인칭 영역만을 일괄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8〉 존댓말의 문법적 범주

		평 칭		존 칭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대명사		sen	sender	siz	sizder
소유 접미사		-ŋ, -iŋ, -iŋ	-ŋdar, -iŋdar, -ŋder, -iŋder	-ŋiz, -iŋiz, -ŋiz, -iŋiz	-ŋizdar, -iŋizdar, -ŋizder, -iŋizder
술어 접미사	A형	-siŋ, -siŋ	-siŋdar, -siŋder	-siz, -siz	-sizdar, -sizder
	B형	-ŋ	-ŋdar, -ŋder	-ŋiz, -ŋiz	-ŋizdar, -ŋizder
	C형	∅	-ŋdar, -iŋdar, -ŋder, -iŋder	-ŋiz, -iŋiz, -ŋiz, -iŋiz	-ŋizdar, -iŋizdar, -ŋizder, -iŋizder

2) 호칭어

호칭어(term of address)는 위에서 소개한 3가지 문법 범주들과 함께 존댓말 체계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어휘적(lexical) 표현이다. 카작어에서 사용되는 호칭어는 크게 친척호칭(kinship term of address), 의사친척호칭(fictive kinship term of address), 이름(personal name), 우회명칭(euphemistic name), 직함(title) 등이 있다.

카작어에서 모든 친척관계로 확대 적용되는 소수의 기본적인 친척호

칭은 *aya* “형님”, *tæte* “누님”, *ata* “할아버지”, *apa* “할머니”의 4종이다. 여기에 친아버지에게만 호칭되는 *æke*와 친어머니에게만 사용되는 *šeše*, 형수에게 호칭되는 *žejge*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친척호칭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표-9> 참조).

〈표-9〉 주요 친척호칭의 일차적 의미와 사용범위

친척호칭	일차적 의미	사용 범위
ata	“할아버지”, “큰아버지”	부모 손위의 남성친척 (배우자의 아버지 포함)
apa	“할머니”, “큰어머니”	부모 손위의 여성친척 (배우자의 어머니 포함)
aya	“형님”, “작은아버지”	화자 손위 ~ 부모 손아래의 남성 친척
tæte	“누님”, “작은어머니”	화자 손위 ~ 부모 손아래의 여성 친척
æke	“아버지”	아버지
šeše	“어머니”	어머니
žejge	“형수”	동일항렬 남성 친척의 배우자 (남편 혈족의 아내는 제외)

친척 호칭 가운데 먼저 *aya*와 *tæte* 호칭을 살펴보면, 본래 전자는 친형(eBr), 후자는 친누니(eSi)를 가리킨다.⁷⁾ 그러나 이 두 호칭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화자보다 손위이면서 화자의 부모보다는 손아래의 거의 모든 친척에게 호칭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aya* 호칭은 eBr 뿐만 아니라 FayBr, MoyBr, FaySiHu, MoySiHu, HueBr, WieBr, HueSiHu, WieSiHu 등의 호칭이 되고, *tæte* 호칭은 eSi를 비롯하여, FaySi, MoySi, FayBrWi, MoyBrWi, HueSi, WieSi, HueBrWi 등의 호칭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항렬(generation)의 요인이 퇴색되어, 형은 숙부나 외삼촌과, 누나는 숙모나 이모와 같은 호칭 등급에 놓이게 되는 카작 문화의 특징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tæte* 호칭의 사용범위는 *aya*의 그것과

7) 앞으로 사용할 친척용어는 다음과 같이 약어로 표시하였다.

Fa: 아버지, Mo: 어머니, Hu: 남편, Wi: 아내, Br: 형제, Si: 자매, So: 아들, Da: 딸,
Pa: 부모, Ch: 자녀, Sb: 형제자매, Sp: 배우자, e: 손위, y: 손아래

정확하게 대칭되지는 않는데, 그것은 eBr, WieBrWi 등의 관계에서 *tæte* 대신 후술될 *zæŋge*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ata*와 *apa* 호칭은 전술한 *aya*, *tæte* 호칭 다음으로 사용 범위가 넓다. 구체적으로 *ata* 호칭은 FaFa, MoFa를 비롯하여 FaFaBr, MoFaBr, FaeBr, MoeBr, FaeSiHu, MoeSiHu, WiFa, HuFa 등에게 사용되고, *apa* 호칭은 FaMo, MoMo를 비롯하여 FaMoSi, MoMoSi, FaeSi, MoeSi, FaeBrWi, MoeBrWi, WiMo, HuMo 등에게 사용된다. 여기에서도 G₊₁ (叔行) 과 G₊₂ (祖行)의 항렬구분이 모호해지고 그보다는 화자 부모와의 순위관계(seniority)에 의해 *ata* / *apa* 의 호칭여부가 결정된다. 또 배우자의 부모(WiFa, WiMo, HuFa, HuMo)는 친부모보다 격이 높은 *ata*, *apa*로 호칭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⁸⁾

“형수”를 의미하는 *zæŋge*는 동일 항렬 순위 남성 친척의 아내에게 사용되는 호칭이다. 이 호칭의 사용은 남성 화자의 경우와 여성 화자의 경우가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성 화자가 아내의 동일 항렬 순위 남성 혈족의 아내들에게 *zæŋge* 호칭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 화자는 남편의 동일 항렬 순위 남성 혈족의 아내들에게 *zæŋge*가 아닌 *tæte*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남성은 WieBrWi를 *zæŋge*로 호칭하고, 여성은 HueBrWi를 *tæte* 로 호칭하는 점이 대비된다. 그러나 이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관계의 친척들은 대부분 이른바 ‘농담관계’에 해당하여 화자와의 나이 차이가 현격하지 않은 한, 존경의 의미를 가진 친척호칭보다는 오히려 직접 청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⁹⁾ 이처럼 호칭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수인 농담관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8) 이와 같이 조부모에 대한 호칭이 배우자의 부모를 비롯한 높은 수준의 존경을 요하는 대상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극존칭으로 기능하는 현상은 일찍이 Radcliffe-Brown의 고전적인 저작인 *The Andaman Islanders*(1964[1932]: 57-80)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9) “형수(*zæŋge*)” 호칭이 사용되는 관계 중에서도 WieBrWi의 경우는 농담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밖에 아버지에게는 *æke*, 어머니에게는 *šese* 호칭이 사용되고, 손아래 형제자매 및 자녀에게는 모두 이름을 부르며, 배우자간에도 서로 이름을 부른다. 언니, 누나에 대해서 이상적으로는 *æpikə*라는 호칭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 *tæte* 나 *jiejie*(姐姐)(한어 차용어 “누나”)¹⁰로 호칭되고 있으므로, *æpikə* 역시 친척호칭의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사용되는 *jiejie* 호칭은 후술할 존댓말의 조작적 사용에 관한 논의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것이다.

친척이 아닌 청자에게 사용하는 친척호칭을 의사친척호칭(fictive kinship term of address)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친척호칭은 *ata*, *apa*, *aya*, *tæte*, *zænge*의 5가지가 있다. 친척에 대한 호칭이 화자와 청자간의 순위관계(seniority)를 중심 원리로 구조화된 것에 반해, 비친척에 대한 의사친척호칭의 사용은 자연적인 나이(age)를 일차적 기준으로 한다. 친척관계에서 부모 순위의 친척에게 사용되는 *ata*와 *apa* 호칭은 비친척관계에서 대략 화자보다 25세 연상의 청자에게 사용되고, *aya*와 *tæte* 호칭은 대략 화자보다 3~25세 연상의 청자에게 사용된다.¹¹ 마지막으로 *zænge*는 비친척 관계에서 화자가 남성이고 청자가 남성 순위 친구의 아내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친척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에서 나이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청자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personal name)은 원칙적으로 친척, 비친척을 막론하고 화자와 동격이거나 손아래의 모든 청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어이다. 중국 카작족의 이름은 성이 없고 공식적인 서류상에서는 ‘이름 + 아버지 이름’으로 적도록 되어 있으나, 일상적으로는 개인의 이름만을 사용한다. 카작어에서 대부분의 호칭은 ‘이름’, ‘이름 + 친척호칭’, 이름을 생략

10) 본 논문에서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되는 한어병음(漢語拼音, hanyu pinyin)체계를 택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11) 여기서 ‘약 25년’은 대략 부모-자녀간의 나이 차이에 부합하고, ‘약 3년’은 동년배라고 여겨지는 연령 범위의 상한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친척호칭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존재 표현으로서의 ‘이름’은 친척호칭이나 기타 직함 등을 수반하지 않는 이름만을 가리키고, ‘이름 + 친척호칭’의 형태는 ‘친척호칭’으로 간주하였다.

우회명칭(euphemistic name)은 여성 화자가 남편의 남녀동생에게 사용하는 특이한 호칭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름의 일종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우회명칭은 카작족의 관습에서 시집 온 여자가 남편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금기 또는 예법과 관련된 호칭이다. 이 금기에 의하면 남편의 부모와 형제자매의 이름은 지칭으로도 부를 수가 없고 그들의 이름과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도 말할 수가 없으며, 그들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이름도 언급할 수가 없다. 남편의 부모나 남편의 형, 누나에 대해서는 *ata*, *apa*, *aya*, *tate* 등 적절한 친척호칭을 사용하면 손쉽게 그들의 이름 사용을 회피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남편의 손아래인 남녀동생들에 대해서는 친척호칭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부름으로써 그들의 이름을 회피하는 금기를 준수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동명이인의 경우에도 친척호칭을 사용할 수 없는 동격 혹은 손아래의 청자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된다. 이처럼 특정 친척의 이름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로 지은 이름들을 우회명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우회명칭은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문화적 현상임에 틀림없으나,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존댓말 체계 내에서 우회명칭이 존경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름의 일종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따라 존댓말에 대한 이하의 논의에서 ‘이름’이란 우회명칭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임을 밝혀 둔다.

직함(title)은 친척호칭이나 이름 등 여타 호칭어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고 존댓말 체계에서 매우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직업 분화 정도가 비교적 낮고 주민의 대부분이 목축민들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행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함으로는 *xiangzhang*[鄉長]“향장”, *muyalim* “교사”, *xiaozhang*[校長]“교장”, *duizhang*[隊長]“대장”, *laoban*[老板]“사장”, *shuji*[書記]“서기” 등이 있다. 먼저 *muyalim*은 화자가 학생이고 청자가 교사인 경우 이외에는 호칭으로서 잘 사용되지 않고, 그 외의 직함들은 대부분이 한어식(漢語式) 명칭이며 규범적인 존댓말 언어목록에 편입되지는 못한 채 특정 사회관계에서 유표적(有標的)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다(이 가운데 특히 *xiangzhang*[鄉長], *laoban*[老板], *shuji*[書記]는 청자의 실제 직업과 아무 관련 없이 사용될 수 있는 호칭으로서, 뒤에서 다룰 존댓말의 비규범적 사용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아울러 카작어의 전통적인 호칭으로 *kaeriya* “노인장”과 *aq-saqal* “흰 수염”이 있다. 양자 모두 “어르신”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지위 호칭어(status terms)인데, 화자와 청자간의 상대적인 나이에 관계없이 50대 이상 남성 청자에게 존경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둘 역시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ata* 등의 호칭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존댓말 체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호칭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존대 표현으로서의 호칭어는 친척호칭, 의사친척호칭, 이름 등 세 종류의 호칭이 중심을 이룬다.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존댓말 언어목록의 공기관계란 주로 이들 세 가지 호칭어와 존댓말의 문법적 범주들(인칭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 간의 결합관계(結合關係, syntagmatic relationship)를 가리킨다. 단 존댓말의 조작적 사용에 대한 논의에서는 일부 직함의 사용상도 다루어질 것이다.

3) 존댓말 언어목록의 공기관계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존댓말의 4가지 언어표현 범주들(즉, 인칭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 호칭어)이 실제 발화에서 어떻게 조합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실제 사용가능한 존대 표현들의 조합은 그 종류가 적은 편이다. 우선 네 부류의 존대 표현들 가운데 호칭어를 제외한 인칭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는 인칭, 수, 존경여부에 있어서 서로 기계적인 대응을 보인다. 즉, 존칭대명사인 *siz*는 존칭소유접미사 및 존칭술어접미사와 공기하고, 평칭대명사 *sen*은 평칭소유접미사 및 평칭술어접미사와 공기하는 것이다. 이들 3가지 문법범주들이 모두 사용된 이상적인 문장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Sen üyiŋe barastıŋ ba?

“너 너의 집에 가느냐?”

(평칭대명사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

Siz üyiŋizge barastız ba?

“당신은 당신의 집에 가십니까?”

(존칭대명사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

물론 이 3가지 문법 요소가 동일 문장에서 모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3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공기할 때는 반드시 인칭, 수, 그리고 존경 여부가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의 세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존대 표현의 공기 관계는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siz*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와 <*sen*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의 2가지뿐이다.

한편 호칭어는 우선 친척호칭(및 의사친척호칭)을 사용하는 경우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로 양분된다. 친척호칭은 다시 *atal/apa*의 단계(level)와 *ayal/tæte*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타 친척호칭(*ake*, *šeše*, *žerŋe*)은 *ayal/tæte*의 단계에 포함된다. 즉, 가장 하위에 이름 호칭이 위치하고, 그 상위에 *ayal/tæte* 호칭이, 가장 상위에는 *atal/apa* 호칭이 위치하는 3단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절의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상술한 문법적 요소들의 2단 구조가 호칭어의 3단 구조와 어떻게 결합하

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호칭어의 가장 낮은 단계를 이루는 이름 호칭은 <sen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의 조합과 공기하고, *aya/tæte* 호칭과 *ata/apa* 호칭은 공히 <siz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의 조합과 공기한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조합, 가령 <siz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와 이름 호칭의 공기라든가, <sen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와 *ata* 호칭의 공기는 실제 사용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카작어 존댓말 언어목록의 공기관계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적게는 3단계, 많게는 4단계로 구조화할 수 있다. 표에서 I⁺형, I형, II형의 공기관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존댓말의 말단계(speech levels)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기관계로 정리된 것이 바로 카작어 존댓말의 기본구조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aya/ʒeŋge*의 호칭이 <sen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와 공기하는 경우인 II⁺형이 있는데, 이 말단계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나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요컨대 존댓말 언어목록의 공기관계는 기본적으로 3등급의 말단계에 예외적인 1개 등급(즉 II⁺형)이 추가된 형태로 구조화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조합들이 각기 어떠한 사회적 관계에서 사용되는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10〉 존댓말 언어목록의 공기관계

존칭	I ⁺ 형	ata/apa - siz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
	I형	aya/tæte - siz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
평칭	(II ⁺ 형)	(aya/ʒeŋge - sen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
	II형	이름 - sen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

4. 존댓말의 사회적 사용 규칙

지금까지 카작어 존댓말 언어목록의 구성 요소와 각 요소들의 결합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말단계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존댓말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규칙에 의해 사용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할 존댓말의 사용 규칙은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발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크게 규범적 사용(normative usage)과 조작적 사용(manipulative usage)으로 구분해서 기술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용법이며, 후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 및 대화시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용법을 가리킨다. 먼저 규범적 사용은 다시 ‘일반 규범’과 ‘특수 규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 규범은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존댓말 사용의 기본 원리이며, 특수 규범은 일반 규범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회관계에 적용되는 2차적인 규칙을 뜻한다.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두 종류의 규범적 용법(즉 일반 규범과 특수 규범)을 검토한 뒤, 각종 사회적 상황이나 개인의 의도에 따라 존댓말이 사용되는 조작적 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들 일반 규범, 특수 규범, 조작적 용법은 모두 사회적으로 적절한 존댓말의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문화적 지식인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적인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1) 일반 규범

일반 규범은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에 적용되는 존댓말의 규범적 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화 참여자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말단계의 선택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존댓말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일반 규범을 최대한 간결하게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1〉 존댓말의 일반 규범¹²⁾

말단계	존대 표현의 공기관계	청자의 화자에 대한 관계	
		친척관계에서	비친척관계에서
I ⁺ 형	siz - 존·소 - 존·술 - ata siz - 존·소 - 존·술 - apa	부모 손위	대략 25세 이상 연상의 사람
I형	siz - 존·소 - 존·술 - aya siz - 존·소 - 존·술 - tate	화자 손위 ~ 부모 손아래	대략 3-25세 연상의 사람
II형	sen - 평·소 - 평·술 - 이름	손아래친척, 배우자, 동년배의 방계친 형제자매	동년배, 연하의 사람

(1) 친척관계에서

카작 사회는 전통적으로 친척 조직에 기반한 사회이며, 존댓말도 대체로 친척관계에서의 용법이 기본이 되고, 그것이 다시 비친척관계로 확대 적용되는 양상을 띠므로, 먼저 친척관계 내에서의 규범부터 살펴보는 것이 기술의 적절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청자가 손아래이거나 배우자, 혹은 동년배의 방계친 형제자매일 경우 평칭인 II형 표현을 사용한다. 청자가 손위 사람 이면서 화자의 부모 연배 이하이면 I형의 존칭 표현이 사용된다. 청자가 화자의 부모보다 손위이면 I⁺형의 존칭이 사용된다. 좀 더 세분하여 설명하면 부계친척의 경우 아버지를 기준으로 그 보다 손위이면 I⁺형, 손아래이면 I형을 사용하고, 모계친척은 어머니를 기준으로 손위이면 I⁺형, 손아래이면 I형을 사용한다. 시가친과 처가친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손위이면 I형, 손아래이면 II형을 사용하고, 배우자 부모를 기준으로 손위이면 I⁺형, 손아래이면 I형을 사용한다. 단, 화자 자신의 친아버지에게는 <siz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 - æke> 형이, 친어머니에게는 <siz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 - šeše> 형이 사용된다.

12) 표에서 ‘존·소’, ‘존·술’, ‘평·소’, ‘평·술’은 각각 존칭소유접미사, 존칭술어접미사, 평칭소유접미사, 평칭술어접미사를 가리킨다.

① I⁺형: 청자가 부모 손위인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의 말단계인 I⁺형은 존칭대명사, 존칭소유접미사, 존칭술어접미사와 *ata* 또는 *apa* 호칭의 공기로 이루어진다. 존칭대명사는 *siz*, 존칭소유접미사는 $\text{~}\text{izl}/\text{~}\text{izl}/\text{~}\text{izl}/\text{~}\text{iz}$, 존칭술어접미사는 $\text{~}\text{izl}/\text{~}\text{izl}/\text{~}\text{izl}/\text{~}\text{iz}$, *-sizl/-siz*가 사용되고, 호칭은 남성 청자일 경우 *ata*, 여성 청자일 경우 *apa*를 부른다. I⁺형은 부모 손위의 친척에게 사용되는 존댓말이다. 상술하면, 부계친 중 아버지 손위의 혈족(FaFa, FaMo, FaeBr, FaeSi 등)과 그들의 배우자들(FaeBr, FaeSiHu 등), 모계친 중 어머니 손위의 혈족(MoFa, MoMo, MoeBr, MoeSi 등)과 그들의 배우자들(MoeBrWi, MoeSiHu 등), 그리고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및 그 손위의 처가친, 시가친(WiFa, WiMo, HuFa, HuMo, WiFaFa, WiFaMo, WiMoFa, WiMoMo, HuFaFa, HuFaMo, HuMoFa, HuMoMo, WiFaeBr, WiFaeSi, WiMoeBr, WiMoeSi, HuFaeBr, HuFaeSi, HuMoeBr, HuMoeSi 등)에게 사용한다.

여기서 필자가 사용하는 ‘손위(seniority)’라는 표현은 대화 참여자들 간의 상대적인 ‘나이(relative age)’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나이 그 자체만으로는 친척 내의 서열 내지 위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막내 삼촌의 아내라든지 아내의 언니나 오빠 등이 본인보다 연하일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본인의 손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시아주머니의 자녀, 누이동생의 남편 등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라도 본인의 손아래 사람이 된다.

친부모에 대한 존댓말의 단계는 I⁺형과 I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아버지에게는 <*siz*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 - *æke*>가 사용되고, 어머니에게는 <*siz*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 - *šeše*>가 사용되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다. ‘아버지’에 해당하는 *æke* 호칭은 I⁺형 호칭인 *ata*보다는 격이 낮고, I형 호칭인 *axa*보다는 격이

높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존댓말은 양 단계의 경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뜻하는 *šeše* 호칭도 *apa* 단계와 *tate* 단계의 경계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필자는 화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존댓말 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후술할 I 형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æke* 호칭이 종종 *aya* 호칭으로 대체되고, *šeše* 호칭이 *tate* 호칭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존댓말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론상 배우자의 부모는 친부모의 순위도 손아래도 아닌 동격이 된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호칭과는 달리 배우자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인 *ata*와 어머니에 대한 호칭인 *apa*는 *aya*나 *tate*로 대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필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관계를 I 형이 아닌 I⁺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친척관계에서 사용되는 존댓말 I⁺형의 사용례이다. 실제 자연 대화로부터 관찰, 수집된 문장으로서 I⁺형의 사회적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Apa, maɣan duŋ tawp berijizshi!

백모님, 내게 통 좀 찾아주세요!

--- 화자는 6세 남아이고, 청자는 화자의 백모(FaeBiWi)이다. 백모는 백부와 동격이므로 아버지보다 순위의 부계친이며, 따라서 I⁺형의 사용이 요구되는 관계에 해당한다. 이 예문에서는 존칭술어접미사(-ijiz)와 *apa* 호칭이 사용되었다.

② I 형: 청자가 화자 순위 ~ 부모 손아래인 경우

I 형은 전술한 I⁺형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존칭이다. 그 내용은 존칭대명사, 존칭소유접미사, 존칭술어접미사와 *aya* 또는 *tate* 호칭의

공기로 이루어지는데, 호칭을 제외한 기타 문법 요소들은 I⁺형의 그것과 동일하다. 존칭대명사는 *siz*, 존칭소유접미사는 *-i/zl/-i/zl/-i/zl/-i/zl*, 존칭술어접미사는 *-i/zl/-i/zl/-i/zl/-i/zl*, *-siz/-siz*가 사용되고, 호칭은 남성 청자에게 *aya*, 여성 청자에게 *tæte*를 사용한다. 친척관계에서 존댓말 I 형은 화자보다 손위이면서 화자의 부모보다는 손아래인 청자에게 사용된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부계친 가운데 화자보다 손위이면서 화자의 아버지보다 손아래인 혈족과 그 배우자들, 모계친 중 화자보다 손위이면서 화자의 어머니보다 손아래인 혈족과 그 배우자들이 이에 해당하고, 또 화자의 배우자보다 손위이면서 배우자의 부모보다는 손아래인 시가친 및 처가친(WieBr, WieSi, WieBrWi, WiFayBr, WiFaySi, WiMoyBr, WiMoySi, HueBr, HueSi, HueBrWi, HueSiHu, HuFayBr, HuFaySi, HuMoyBr, HuMoySi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화자보다 손위이면서 부모보다 손아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eSiHu(“매형” 및 “형부”)와 eBrWi(“형수” 및 “손위 올케”), WieSiHu(“손위 동서”)의 세 경우가 누락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사회관계는 후술될 이른바 ‘농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자가 손위임에도 불구하고 I 형보다 격이 낮은 평칭(II 형 또는 II⁺형)을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일반 규범의 모델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은 특수 규범의 논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친부모에 대한 관계도 앞서 설명한대로 I 형 단계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I 형의 사용 사례이다.

Ishiqiz, aya! Šöldeysiz.

드세요, 오라버님! 목마르시겠어요.

--- 화자는 37세의 여성이고, 청자는 46세의 남성으로 화자의 사촌오빠(FaeBreSo)이다. 청자가 화자보다 손위이면서 화자의 아버지보다 손아래인 부계친이므로 I 형의 사회적 관계에 해당된다. 이 예문에서는 존칭술어접미사(-i/zl, -siz)와 *aya* 호칭이 사용되었다.

③ II형: 청자가 화자의 동년배, 배우자, 손아래인 경우

존댓말 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II형은 존대가 아닌 평대의 표현으로서, 평칭대명사, 평칭소유접미사, 평칭술어접미사와 이름 호칭의 공기로 이루어진다. 평칭대명사는 *sen* 이며, 평칭소유접미사는 *-ij/-ijj/-ijj*, 평칭술어접미사는 *-sijj/-sijj*, *-ij/-ijj/-ijj*, \emptyset 을 사용하고, 호칭은 청자의 이름을 부른다. II형은 친척 내의 위계상 화자와 서열이 같거나 그 하위인 청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관계로는 화자의 배우자(Wi, Hu), 배우자보다 손아래인 처가친 및 시가친(WiyBr, WiySi, HuyBr, HuySi, WiyBrWi, WiySiHu, HuyBrWi, HuySiHu 등), 화자 자신의 남녀동생들(yBr, ySi) 및 그 배우자, 그 밖에 화자와 동년배이거나 연하인 동일항렬 친척들 및 모든 하위 항렬 친척들이 포함된다. 대체로 방계친의 경우 위계적 구분이 덜 엄격하여 나이 차이가 3년 이하이면 동년배로 간주하여 II형 관계에 포함된다.

다음은 II형 표현의 사용 사례이다.

Æbil, maldarij qanday?

애블야, 네 가족들은 어떠냐?

--- 화자는 65세의 남성이고, 청자인 애블은 36세의 남성으로 화자의 사위의 동생(DaHuyBr)이다. 청자가 화자의 손아래이므로 II형 관계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평칭소유접미사(-ijj)가 사용되었고, 호칭은 화자의 이름을 불렀다.

(2) 비친척관계에서

친척관계에서 사용되는 3단계의 존댓말 형태들이 비친척관계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적용된다(표 - 11 참조). 다만, 친척관계에서는 항렬 및 연령관계에 따른 순위관계(seniority)가, 비친척관계에서는 자연적인 ‘나

이(age)'가 말단계 선택의 일차적 기준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① I⁺형: 청자가 대략 25세 이상 연상인 경우

비친척 청자 중 화자보다 약 25년 이상 손위인 경우에 존대말 I⁺형을 사용한다. 이는 부모 손위의 친척에 대한 존댓말이 비친척 청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것으로서, 친척간의 존댓말 I⁺형과 마찬가지로 존칭대명사, 존칭소유접미사, 존칭술어접미사 및 *ata* 혹은 *apa* 호칭의 공기로 이루어진다. 비친척관계에서 청자가 화자보다 대체로 25년 이상 손위라면 화자 부모의 동년배(*qurdas*) 집단 내지 그 이상의 연배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다음은 비친척관계에서 I⁺형이 사용된 예문이다.

Bazarẏa bardı̇ñiz, ata?

장에 가셨어요, 어르신?

--- 화자는 31세의 여성이고, 청자는 58세의 남성이다. 청자가 화자보다 27세 연상이므로 I⁺형 표현의 사용이 요구되는 관계이다. 여기서는 존칭술어접미사(-ñiz)와 *ata* 호칭이 사용되었다.

② I 형: 청자가 대략 3 ~ 25세 연상인 경우

화자보다 3세 ~ 25세 연상인 비친척 청자에게 사용되는 존칭으로서, 존칭대명사, 존칭소유접미사, 존칭술어접미사와 *aya* 또는 *tæte* 호칭의 공기로 이루어진다. 친척관계에서 화자 손위 ~ 부모 손아래의 청자에게 사용하는 존댓말의 단계가 비친척에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비친척관계에서 I 형 사용의 예이다.

Oydan qašan šiqtı̇ñiz, Tašen aya?

산 아래서 언제 올라오셨어요, 타셴 형님?

--- 화자는 53세의 남성이고, 청자는 59세의 남성이다. 청자가 6세 연상이므로 I 형에 해당하는 관계이다. 이 예문에서는 존칭술어접미사 (-rijiz)와 *aya* 호칭이 사용되었다.

③ II 형: 청자가 화자의 동년배이거나 연하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의 말단계로서 평칭대명사, 평칭소유접미사, 평칭술어접미사와 이름 호칭의 공기로 이루어지며, 비친척관계에서 청자가 화자보다 연하이거나 화자와 동년배일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평대의 표현이다. 동년배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대체로 청자와 화자의 나이 차이가 3년 이하인 관계이다.

다음은 비친척관계에서 II 형이 사용된 예이다.

Sende osī žerde artıq bizaw bar ma, Šatay?

너에게 이곳에 남는 송아지(어미 소가 없는 송아지) 있느냐, 차타이?

--- 화자는 60세의 여성이고, 청자는 43세의 남성이다. 청자가 연하이므로 평칭인 II 형이 사용되는 관계이다. 여기서는 평칭대명사 처격 (*sende*)를 사용하고 청자의 이름을 불렀다.

2) 특수 규범

특수 규범은 전술한 일반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존댓말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2차적인 규범이다. 여기서 일반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란 카작족 사회에서 농담(*qalžin*)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규정된 관계들을 가리킨다. ‘농담 한다(*qalžin aytadi*)’ 혹은 ‘농담 하지 않는다’(*qalžin aytpaydi*)라는 표현으

로 규정된 카작족 사회의 특별한 관계들을 인류학 용어로 환원하면 농담 관계(joking relationship)와 회피관계(avoidance relationship)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Radcliffe-Brown 1952[1940] 참조). 카작어 존댓말은 회피관계에서 일반 규범이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 별도의 언급이 필요치 않으나, 농담관계에서의 존댓말 사용 양상은 일반 모델과는 상이한 규범이 적용된다. 일반 규범에서 일탈된 사회관계인 농담관계에서의 존댓말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모델을 필자는 ‘특수 규범’으로 명명하였다.

특수 규범을 도표화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2〉 존댓말의 특수 규범

말단계	존대 표현의 공기관계	청자의 화자에 대한 관계	
		친척관계에서	비친척관계에서
II ⁺ 형	sen - 평 · 소 - 평 · 술 - aya sen - 평 · 소 - 평 · 술 - zeŋge	농담관계이면서 화자보다 대략 15세 이상 연상인 순위 친척	확대된 농담관계이면서 화자보다 대략 15세 이상 연상인 경우
II형	sen - 평 · 소 - 평 · 술 - 이름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농담관계의 친척	확대된 농담관계이면서 화자보다 15세 연상 이하의 모든 경우

* 위의 모델에서 zeŋge라는 호칭은 본래 eBrWi, 즉 “형수”나 “손위올케”를 가리키는 친척명칭이다. 따라서 형수나 손위올케는 대화 당사자의 상대적인 나이에 관계 없이 모두 zeŋge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호칭 사용에 있어서 화자보다 대략 15년 이상 연상인 eBrWi에게만 zeŋge 호칭을 부르며 그보다 어릴 경우에는 zeŋge 호칭보다는 역시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존댓말 언어목록으로서의 호칭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eBrWi에 대한 존댓말도 그 상대적인 나이에 따라 zeŋge 호칭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II⁺형과 II형의 단계에 포함시켰다.

특수 규범에서도 기본적으로 친척관계 내에서의 모델이 비친척관계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농담관계는 본래 친척관계 내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먼저 친척관계에서의 특수 규범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친척관계에서: 농담관계

친척관계 내에서 농담관계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들은 아래와 같다.

(i) *baldiz* - *žezde* 관계

; WiyBr(손아래처남) - eSiHu(매형)

; WiySi(처제) - eSiHu(형부)

(ii) *qayn ini* - *žəŋge* 관계

; HuyBr(시동생) - eBrWi(형수)

(iii) *qayn siŋli* - *žəŋge* 관계

; HuySi(손아래시누이) - eBrWi(손위올케)

(iv) *quda* - *quda* 관계

; SoWiFa(사돈) - DaHuFa(사돈)

; yBrWieBr(제수의 오빠) - ySiHueBr(매부의 형)

(v) *quda* - *qudaŋiy* 관계

; SoWiFa(바깥사돈) - DaHuMo(안사돈)

; DaHuFa(바깥사돈) - SoWiMo(안사돈)

; yBrWieBr(손아래올케의 오빠) - ySiHueSi(제부의 누나)

; ySiHueBr(제부의 형) - yBrWieSi(제수의 언니)

(vi) *qudaŋiy* - *qudaŋiy* 관계

; SoWiMo(사돈) - DaHuMo(사돈)

; yBrWieSi(손아래올케의 언니) - ySiHueSi(제부의 누나)

- (vii) *quda bala* - *quda bala* 관계
 ; eBrWiyBr(형수의 남동생) - eSiHuyBr(매형의 남동생)
- (viii) *quda bala* - *qudaša* 관계
 ; eBrWiyBr(손위올케의 남동생) - eSiHuySi(매형의 여동생)
 ; eSiHuyBr(형부의 남동생) - eBrWiySi(형수의 여동생)
- (ix) *qudaša* - *qudaša* 관계
 ; eBrWiySi(손위올케의 여동생) - eSiHuyBr(형부의 남동생)
- (x) *baža* - *baža* 관계
 ; WieSiHu(손위동서) - WiySiHu(손아래동서)
- (xi) *qurdas* (동년배) 관계

농담관계는 대부분 친척간의 순위관계를 따질 수 없는 ‘동격의(*žol taŋ*)’ 관계로서 기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평대를 한다. 다만 친척 내의 서열상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순위라고 할 수 있는 (i) WiyBr - eSiHu 및 WiySi - eSiHu, (ii) HuyBr - eBrWi, (iii) HuySi - eBrWi, (x) WieSiHu - WiySiHu 등 5가지 관계에서는 친척 서열상 순위인 칭자가 연령상으로도 화자보다 대략 15세 이상 연상인 경우에 한하여, II형 표현에서 호칭만 이름 대신 *axa/žanŋe*로 대신한 절충적인 말단계를 사용하게 된다. 즉, WiyBr나 WiySi는 약 15세 이상 연상의 eBrWi(*žanŋe*)에게 *žanŋe*를 부르며, WiySiHu는 약 15세 이상 연상의 WieSiHu(*baža*)에게 *axa*를 부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호칭을 *axa* 및 *žanŋe*로 대체한 변형된 II형 표현을 ‘II⁺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III장의 표 - 10 참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농담 관계에서는 상호 II형을 주고받는 다.

① II⁺형: 청자가 약 15세 이상 연상의 순위친척인 경우

이 단계는 일반 규범의 II형을 일부 변형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평칭대명사, 평칭소유접미사, 평칭술어접미사와 존칭 호칭인 *aya* 혹은 *žəŋge*의 공기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격상된 평칭으로서 I 형과 II형의 중간 수준에 놓이는 예외적인 말단계를 이룬다. 평칭대명사는 *seni*이며, 평칭소유접미사는 *-ŋ/-ñj/-ñj*, 평칭술어접미사는 *-sñj/sñj*, *-ŋ/-ñj/-ñj*, \emptyset 을 사용하고, 호칭은 남성 청자에게 *aya*, 여성청자에게 *žəŋge*를 사용한다. 이 II⁺형의 사용 범위는 농담관계에 있는 친척 가운데 청자보다 친척 서열상 순위이면서 나이도 대략 15세 이상 연상인 경우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eBrWi, eSiHu, WieSiHu가 화자보다 약 15세 이상 연상인 경우들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WieSiHu와 eSiHu는 남성이므로 *aya* 호칭이 사용되고, eBrWi는 여성이므로 *žəŋge* 호칭이 사용되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그 밖의 농담관계들 (SoWiMo, SoWiFa, DaHuFa, DaHuMo, eBrWiyBr, eSiHuyBr, eSiHuySi, eBrWiySi, 동년배, WiySiHu, HuyBr, HuySi, WiyBr, WiySi 등)은 이 II⁺형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친척관계에서 II⁺형 표현이 사용된 사례이다.

Šatay *aya*, *senderdiŋ* telefon nömür qanša? qanšaya aldïŋ?

차타이 형, 너희들 전화번호 몇 번이야? (그 전화기) 얼마에 샀어?

--- 화자(22세)와 청자(43세)의 관계는 손아래처남과 매형(*baldiz* - *žezde*)의 관계이다. 평칭대명사 속격(*senderdiŋ*)과 평칭술어접미사(-ŋ), 그리고 *aya* 호칭이 사용되었다. 농담관계이므로 기본적으로 평대하였으나 나이 차이가 현격하므로(21년) 호칭은 이름이 아닌 *aya*를 부른 것이다.

② II형: 청자가 약 15세 이상 연상의 손위친척이 아닌 경우

일반 규범의 II형과 형태는 동일하다. <평칭대명사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 - 이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평칭대명사는 *sen*, 평칭소유접미사는 *-ŋ/-ŋj/-ŋj*이며, 평칭술어접미사는 *-sŋj/-sŋj*, *-ŋj/-ŋj*, \emptyset 을 사용하고, 호칭은 청자의 이름을 사용한다. II형의 사용 범위는 친척내 농담관계들 중에서 II⁺형에 포함되는 ‘청자보다 친척 서열상 손위이면서 나이도 대략 15세 이상 연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이다. 거기에는 *eBrWi*, *eSiHu*, *WieSiHu*가 화자보다 대략 15세 이상 연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농담관계의 친척들, 다시 말해 *SoWiMo*, *SoWiFa*, *DaHuFa*, *DaHuMo*, *yBrWieBr*, *ySiHueBr*, *ySiHueSi*, *yBrWieSi*, *eBrWiyBr*, *eSiHuyBr*, *eSiHuySi*, *eBrWiySi*, 동년배, *WiySiHu*, *HuyBr*, *HuySi*, *WiySi*, *WiyBr*, *WiySi*와 대략 15세 연상이 아닌 *eBrWi*, *eSiHu*, *WieSiWi*가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남편의 남녀동생들 (*HuyBr*, *HuySi*)에 대한 호칭 금기와 연관된 우회명칭은 ‘이름’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이들 우회명칭이 항상 평칭(II형)과 공기하며, 친척내의 서열상 청자가 명백히 손아래인 경우에 사용되는 호칭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II⁺형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농담관계에서는 II형이 사용된다.

친척관계에서 II형의 실제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Enšiles, bızaw kördiŋ ba?

엔츠레스, 송아지 봤어?

--- 화자(37세)와 청자(36세)는 형수(*eBrWi*)와 시동생(*HuyBr*), 즉 *žəŋge - qayn ini* 관계이다. 농담관계이므로 화자는 청자를 평대하였다. 평칭대명사(*sen*)와 평칭술어접미사(*-ŋ*)를 사용하였고, 호칭은 청자의 본명 대신 형수인 자신이 직접 지은 우회명칭인 *Enšiles*를 사용하였다.

우회명칭도 *aya, tæte*보다는 격이 낮으므로 II형으로 간주한다(남편의 부모 및 형, 누나에 대해서는 *ata, apa, aya, tæte*로 호칭하므로 우회명칭을 지을 필요가 없다).

(2) 비친척관계에서: 확대된 농담관계

비친척관계에서도 농담관계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확대된 농담관계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비친척관계에서의 농담관계는 기본적으로 상술한 농담관계가 확대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남성 화자의 입장에서 절친한 연상 남성 친구의 아내는 ‘형수’로, 동갑친구의 매형(*žezde*)은 본인의 매형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런 관계는 시동생 - 형수(*qayn ini - žæŋge*) 관계 및 손아래처남 - 매형(*baldiz - žezde*)관계와 같은 형태의 존댓말 사용 규칙이 적용된다. 비친척관계에서는 이 밖에도 동년배친구(*qurdas*) 관계를 비롯하여, 순위 청자가 화자에게 신망을 잃어 서로 존중하지 않게 된 관계나, 동년배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면서도 친형제처럼 각별히 가까운 친구 관계 등 소수의 특수한 경우들도 넓은 의미의 확대된 농담관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친척간인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가 일단 농담관계로 재규정되고 나면 서로 상대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카작 문화에서는 개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의 농담관계의 범위를 확대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본래 일부 특수한 친척관계에서 기원하는 농담관계를 비친척관계에까지 적용하는 현상은 주로 대화 당사자가 남성일 경우에 나타난다. 비친척관계에서 여성이 농담관계에 편입될 수 있는 경우는 의사적인 시동생 - 형수(*qayn ini - žæŋge*) 관계와 동년배친구(*qurdas*) 관계가 유일하다(단, 화자를 여성으로 하는 *WiySi - eSiHu* 관계나 *HuySi - eBrWi* 관계 등은 비친척관계로 확대되지 않는다).

비친척간 농담관계도 친척간 농담관계의 경우와 동일한 2단계의 구

조를 가지고 있다(표 - 12 참조). 기본적으로 역시 II형 표현, 즉 <sen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 - 이름>의 형태가 사용되며, 청자가 화자보다 대략 15살 이상 위일 경우에 한하여 II⁺형이 사용되는데, 남성 청자에게는 <sen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 - aya>가, 여성 청자에게는 <sen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 - ženge>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① II⁺형: 청자가 대략 15세 이상 연상인 경우

농담관계에서 사용되는 II⁺형과 마찬가지로 <평칭대명사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 - aya/ženge>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사용 범위는 청자가 화자보다 대략 15살 이상 위의 비친척이면서 확대된 농담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II⁺형은 친척간보다는 비친척간에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비친척관계에서 II⁺형의 구체적인 사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

Qīmiz işpeysiŋ ba?

마유주 마시지 않을래?

--- 화자는 43세, 청자는 59세이다. 청자가 화자의 동년배친구 (*qurdas*)의 매형이라 하여, 화자 자신과도 처남 - 매형(*baldiz - žezde*)의 관계로 조정된 이른바 확대된 농담관계이다. 위의 예문에서 평칭술어접미사(-*siŋ*)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호칭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 둘의 관계에서는 존칭이 아닌 평칭을 사용하는 대신, 청자가 화자보다 16살 위라는 나이 차이를 고려하여 화자는 청자에게 이름 대신 통상 *aya*나 *duizhang*[隊長] 등의 기타 호칭으로 부른다.

② II 형: 청자가 15세 이상 연상이 아닌 경우

이 단계는 <평칭대명사 - 평칭소유접미사 - 평칭술어접미사 - 이름> 이 공기하는 형태이다. II형은 청자가 화자보다 약 15년 이상 연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비친척 농담관계에 적용된다.

실제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Oy, **Baqay!** Bügin Şatay ketti, **sen** qaldıñ.

어이, 바카이! 오늘 차타이는 떠나고 너는 남았다.

--- 화자는 28세, 청자는 37세이다. 화자는 청자의 남편인 Şatay와 ‘형남-아우하는’ 사이이므로, Şatay의 아내인 청자(Baqay)는 화자에게 형수(žǎŋge)가 되는 셈이다. 즉, 확대된 시동생 - 형수(qayn ini - žǎŋge)의 관계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9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칭대명사(sen)와 평칭술어접미사(ㄱ)가 사용되었다. 호칭도 žǎŋge 대신 청자의 이름(Baqay)을 직접 불렀다. 비친척간 농담관계의 전형적인 예이다.

3) 개인의 의도 및 사회적 상황에 따른 조작적 사용

앞서 살펴본 일반 규범 및 특수 규범은 대화 당사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존댓말 사용의 이상적인 규범들을 분류, 정리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존댓말의 실제 사용에서 그러한 이상적인 규범이 조작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자가 관찰한 중국 카작족의 존댓말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다룬 일반 규범 및 특수 규범이 상당히 엄격하게 준수되지만,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도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규범이 다소 변형, 완화되거나 부분적으로 파괴되기도 한다. 존댓말이 조작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경우들을 소개한다.

먼저 화자가 청자에 대한 친근감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말단계를 낮추는 경우가 소수 발견된다. 중국의 카작족 사회에서 발견되는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아마도 화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통적인 카작어 호칭 *šeše* “어머니” 대신에 한어(漢語) 차용 호칭인 *mama*(媽媽) “엄마”를 사용하는 경우일 것이다. 대개 *šeše* 호칭은 규범에 따라 존칭의 문법 범주들과 공기하는 반면,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mama* 호칭은 주로 평칭의 문법 범주들과 공기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동일한 청자가 전자의 경우에는 존대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평대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

Šešem, botayimdi akemediŋiz ba?

(내) 어머니, 내 장화 안 가져 오셨어요?

Šeše, bizdi siz disimdetesiz ba?

어머니, 우리를 당신께서 (학교에) 등록시키실 건가요?

--- 위의 두 문장에서 화자와 청자는 모녀간이다. 화자는 어머니인 청자에게 *šeše* 호칭, 존칭대명사(*siz*), 존칭술어접미사(*-ŋiz*, *-siz*)를 사용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I형 단계에 부합하는 규범적 사용의 예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규범이 일시적으로 파괴되는 양상을 보인다.

Mama, žeysiŋ ba?

엄마, (이거) 먹을래?

Mama, aq jiaobu[膠布]-di qay žerden kördiŋ?

엄마, 하얀 테이프를 어디서 봤어?

--- 동일한 화자와 청자이지만 이번에는 한어에서 차용된 호칭인 *mama*가 사용되었고, 그것이 평칭술어접미사인 *-siŋ*, *-ŋ*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처럼 동일한 사회관계에서도 화자가 어떤 태도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존댓말의 말단계를 일시적으로 격상 혹은 격하시킬 수 있다. 위의 예에서는 화자가 청자에 대한 친근감 내지 어리광, 재롱, 귀여움, 장난스러움 등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규범보다 한 단계 낮추어 평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존댓말의 유표적(有標的) 사용(marked usage)은 청자가 어머니일 경우에는 종종 나타나지만 청자가 아버지일 경우에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점도 흥미롭다. (한어식 호칭인 *baba*[爸爸]“아빠”는 카작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사례는 한어식 친척호칭이 카작어 호칭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예에서 *mama* 호칭과 평칭술어접미사의 사용은 일반 규범의 모델에서 대략 I 형과 II 형의 중간 단계인 II⁺형 정도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문인 “*Mama, žeysiŋ ba?*”를 이상적인 모델의 I 형과 II 형으로 옮기면 각각 “*Šeše, žeysiz ba?*”와 “*Baqay* (어머니의 이름), *žeysiŋ ba?*”의 형태가 된다. 이 세 문장들의 위계관계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 있다.

〈표-13〉 존댓말의 유표적 사용

I 형	Šeše, žeysiz ba?	“어머니, 잡수실래요?”	〈šeše - 존칭술어접미사〉
II ⁺ 형	Mama, žeysiŋ ba?	“엄마, 먹을래?”	〈mama - 평칭술어접미사〉
II 형	Baqay, žeysiŋ ba?	“바카이, 먹을래?”	〈이름 - 평칭술어접미사〉

앞의 표에서 제시된 3가지 문장들 가운데, 대화 당사자가 모녀(Da - Mo)의 관계일 경우 위 표의 II 형과 같이 자녀가 어머니의 이름을 호칭하는 것은 존댓말 사용 규범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사회관계에서 호칭으로는 *šeše*와 *mama*의 두 가지 형태만이 수용가능한 선택지인 것이며, 화자는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서 *šeše* 호칭을 사용하는

존대와 *mama* 호칭을 사용하는 평대를 취사선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규범적 사용은 역시 전자이며, 후자는 화자의 의도에 따른 유표적 사용인 것이다.

비슷한 의도를 담고 있는 유표적 사용의 또 다른 예로서, 역시 손위 여성 청자에게 사용되는 *jiejie*(姐姐)라는 호칭이 있다. 한어의 *jiejie* “누나”, “언니”가 카작어에 차용된 것으로, 대개 3~5살 위의 친척 및 비친척 여성 청자에게 사용된다. 규범적 사용에서 사용되는 *tate*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호칭이며, 위에서 소개한 *mam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한 비규범적 호칭 사용의 예이다. 이 *jiejie* 호칭은 반드시 평칭대명사, 평칭소유접미사, 평칭술어접미사와 공기관계를 이룬다.

일반 규범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청자가 화자보다 3~25세 이상 위인 여성일 경우는 *tate* 호칭을 포함하는 I형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범에 의하면 화자보다 3~5년 위인 여성 청자에게도 *tate* 호칭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이 정도의 근소한 연령 차이에서는 *tate* 호칭보다는 차용 호칭인 *jiejie*가 오히려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형태상 일반 규범의 I형과 II형의 경계인 II⁺형의 단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어식 호칭의 사용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언어 현상으로서, 아직 *jiejie*와 같은 호칭이 중국 카작족의 존댓말 규범 속에 확고하게 정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비교적 격이 낮은 하나의 호칭어로서 현재 중국 카작족 존댓말 체계에 침투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mama* 호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근감 등을 표시하기 위한 유표적 사용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여기서도 “오빠”, “형”에 해당하는 한어 호칭인 *gege*(哥哥)는 사용되지 않는 점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jiejie* 호칭을 하나의 말단계로 인정한다면, 여성 청자에 대한 존댓말의 단계가 남성의 경우보다 세분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남성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은 ‘ata - aya - 이름’의

3단계이고, 여성은 ‘apa - tæte - jieje - 이름’의 4단계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농담관계에서 청자가 화자보다 대략 15살 이상 위인 경우에 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는 평칭을 유지한 채 호칭을 *laoban*[老嫗“사장”, *xiangzhang*[鄉長“향장”, *shuji*[書記], *duizhang*[隊長 등 한어식 직함으로 부르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 호칭은 청자의 실제 직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직함이다. 이와 같은 조합은 말단계상 II⁺형의 단계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단, 규범적 사용이라기보다는 역시 화자의 여러 가지 개인적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유표적 사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카작어의 존댓말 체계에서 호칭은 *ata*, *apa*, *aya*, *tæte* 등 친척호칭 내지 의사친척호칭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규범으로 되어있다. 반면 이들 한어식 직함은 카작어에서 호칭으로 사용될 경우 특정한 어감 - 장난스러움, 냉소, 비아냥거림, 평등함, 풍자, 희롱, 유쾌함 등 - 을 갖게 된다. 특히 *shuji*[書記 호칭은 상대방의 지나치게 과시적인 태도나 복장 등을 간접적으로 풍자하는 어감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한어식 직함들은 I 형으로 부르기에는 과분하고 II형으로 부르기에는 미안하다고 여겨지는 상대에게 주로 사용된다. 가령 규범상 *Šatay aya*“차타이 형님”으로 불러야 할 관계에서 *Ša laoban*“차 사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화자는 청자에 대해 *aya* 호칭이 너무 격이 높고,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하여 양자 모두 사용을 보류하고 그 대신 이름과 *aya* 호칭의 중간격인 한어 차용 호칭 *laoban*[老嫗“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어식 호칭들은 평칭대명사, 평칭소유접미사, 평칭술어접미사와 공기관계를 이루므로 상술한 *mama*나 *jieje*와 마찬가지로 카작어 존댓말 체계에서 비교적 낮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¹³⁾ 실제로 이들 호칭은 일반적인 사회관계보다는 농담관계에서

13) 이처럼 한어식의 친척호칭이나 직함들이 전통적인 카작어 친척호칭에 비해 낮은 말 단계의 표현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존댓말이 발달하지 않은 비교적 평등지향적인 언어인 한어(漢語) 및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강조되는 한족(漢族) 문화에 대한

화자보다 15살 이상 위의 청자(즉, II⁺형 단계에 있는 청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II⁺형 단계에서 카작어 친척호칭 및 의사친척호칭은 무표적 사용, 한어식 직함의 호칭은 유표적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존댓말의 유표적 사용에는 말단계의 의도적인 격상도 포함된다. 위에서 소개한 한어식의 직함이나 친척호칭의 경우처럼 규범적 사용에서 보다 말단계를 격하하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손아래나 동격의 청자에게 I형 존댓말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어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II형이 사용될 사회관계에서 *axa*, *tate* 등의 호칭과 존칭대명사, 존칭소유접미사, 존칭술어접미사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역설, 냉소, 우회적 훈계, 과장, 자조, 흥겨움, 재치 등의 메시지를 청자에게 전달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 대화 당사자들은 존댓말의 유표적 사용이 특정한 개인적 의도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그것이 사회관계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상황이 존댓말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격식성(formality)이 높은 상황에서는 존댓말 규범을 평소보다 엄격히 준수하게 된다. 여기서 격식성이 높은 상황이란 주로 외지인 혹은 일상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던 낯선 손님과 동석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바깥에서 온 손님(*sirttan kelgen kis*)”이 많이 동석한 자리에서의 잘못된 존댓말 사용은 수치(羞恥, *uyat*)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한 존댓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낯선 손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는 모든 내부자 집단 성원들에게까지도 평소보다 엄격한 존댓말 사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대로 대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겨 심한 언쟁을 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평소와 같은 존대를 하지 않고 가장 낮은 단계인 II형 표현을 주로

카작 사람들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되며, 이와 매우 유사한 양상이 미국 한인 사회에서 진행된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접변에 대한 연구(왕한석,1998)에서도 나타난다.

사용하게 된다. 앞의 경우와 대비하자면, 격식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권력자에 대한 존댓말 사용은 대화 당사자의 상대적 나이에 관계없이 <존칭대명사 - 존칭소유접미사 - 존칭술어접미사 - 해당 직함>의 형태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 집단의 일상적인 사회관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사례도 단 1개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하나의 특수한 상황적 요인(대화 당사자의 권력 차이가 이례적으로 현격한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5. 요약 및 논의

이 글은 중국 카작족의 존댓말의 구조적 특성 및 사회적 사용 규칙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존댓말이라는 문화-특수적인 현상의 기술과 분석을 통해서 카작 사회가 갖고 있는 전체 문화적 체계의 핵심적인 한 측면이 어느 정도 규명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중국 카작족의 존댓말은 기본적으로 존칭과 평칭의 2단 구조이다. 존칭은 다시 I⁺형과 I형의 2 단계로 세분되고, 평칭도 II⁺형과 II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하여 존칭의 수위는 도합 4개의 단계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중에서 II⁺형 단계는 예외적인 관계나 상황에서만 사용되므로, 기본적인 말단계는 I⁺형, I형, II형의 3 등급으로 이루어진다.

존대가 표시되는 영역은 문법적 범주와 어휘적 표현의 두 가지가 있다. 존대 표시의 문법적 범주는 인칭대명사, 소유접미사, 술어접미사의 3가지가 있고, 어휘적 표현은 주로 호칭어를 가리킨다. 3가지 문법적 범주들은 각각 존칭과 평칭이라는 두 부류의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일차적인 말단계의 구분(존칭/평칭)이 이루어진다. 호칭어는 주

로 존칭 표현과 공기하는 ‘친척호칭’과 대개 평칭 표현과 공기하는 ‘이름’이 대표적이다. 친척호칭은 다시 *atal apa* 등급의 호칭과 *ayal tæte* 등급의 호칭으로 나뉜다. 따라서 호칭어의 영역에서 적어도 3등급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atal apa*의 호칭, *ayal tæte*의 호칭은 존칭의 문법적 범주들과 공기하고, 이름 호칭은 평칭의 문법적 범주들과 공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3단계 구분 위에 *aya*나 *zæŋge* 등의 호칭어를 이름 대신 사용하되 문법 범주들은 존칭이 아닌 평칭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단계가 추가되어 모두 4등급의 말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존댓말의 사회적 사용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화 당사자들의 위계에 따라서 존댓말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대화 당사자들간의 위계를 결정하는 변수는 친척관계와 비친척관계에서 달라진다. 친척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친척내의 서열, 즉 순위 관계가 중심 원리이고, 비친척관계에서는 상대적인 나이가 일차적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변수는 농담 관계에서 평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농담관계는 곧 ‘용인된 무례’의 관계로서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의 존댓말 사용 규칙이 상당부분 파괴되기 때문이다.

친척관계에서는 자기 부모보다 손위의 친척에게 I⁺형, 부모 손아래 ~ 자기 손위인 친척에게 I형, 그 밖의 동년배, 배우자 및 손아래 친척에게 II형 존댓말을 사용한다. 단, 농담관계의 친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II형으로 평대화되, 화자보다 약 15살 이상 위인 농담관계의 손위친척에 한해서 II⁺형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비친척관계에서는 대체로 자신보다 25살 이상 위인 사람에게 I⁺형, 자신보다 3 ~ 25살 위의 사람에게 I형, 나이 차이가 3살 이하인 동년배 및 기타 연하의 사람에게는 II형을 사용한다. 단, 비친척 중 농담관계로 인식되는 소수의 경우에는 대개 II형을 사용하고, 화자보다 약 15살 이상 위인 농담관계의 비친척 청자에 대해서만은 II⁺형을 사용하게 된다.

규범을 다소 벗어난 이른바 조작적 사용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의도(주로 친밀감이나 냉소, 파격 등 특정한 태도를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말단계가 격상되거나 격하될 수 있다. 그 밖에 바깥손님들이 많이 동석한 격식성(formality)이 높은 상황이나 권력자를 대하는 상황, 혹은 언쟁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 등 각종 특수한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규범적 용법에서보다 높거나 낮은 단계의 존댓말이 사용될 수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카작어 존댓말의 사용 양상은 사회 구조나 도덕적 가치관 등 카작족 문화의 비언어적인 제현상과 매우 긴밀한 상호통합(inter-penetration)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¹⁴⁾ 존댓말과 관련한 사회구조나 가치관 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우선 연장자 공경에 관한 각종 문화적 예법들을 들 수 있다. 이는 인사하는 순서, 식사시에 앉는 자리, 찻잔 받는 순서, 대접하는 양고기의 부위별 위계를 비롯하여, 연장자가 말을 타고 내릴 때 부축해 드려야 하며, 연장자를 손님으로 맞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상석으로 모셔야 하는 규범, 연장자의 말을 끊거나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금기 등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필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존대의 행위들이 취해지는 사회관계는 언어적으로도 존칭이 사용되는 사회관계와 대체로 일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언어적 행위에서 표현되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수준이 존댓말의 단계와 부합하도록 섬세하게 조율되었다. 즉, 특정 사회관계에서 비언어적 존대의 행위들이 언어현상인 존댓말과 일종의 ‘공기관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각종 예법들은 일차적으로는 그 사회가 조직되는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카작족 사회에서 그러한 원리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 사회가 *친척 중심*의 사회라는 점, 둘째는

14)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와 사례는 김우진(2006)을 참조할 것.

사회관계가 기본적으로 매우 *위계적*이라는 점, 셋째는 *농담관계* 여부가 중요 변수라는 점이다. 친척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무엇보다 선행하여, 상대방이 친척이라면 친척내의 순위관계 (*seniority*)에 의해, 비친척이라면 상대적인 나이(*relative age*)에 의해 두 사람의 위계관계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의 양식이 결정된다. 가령 시아주버니의 아들(*HueBrSo*)이나 시동생(*HuyBr*)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손아래사람인 반면, 숙모(*FayBrWi*)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손위 사람이 된다. 사회 구조의 위계성은 카작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현저한 조직 원리로서, 개인은 위계상의 구분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존경의 수준을 조절하고 적당한 행동 양식을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카작 사회에서 어떤 두 사람이 평등한, 즉 동격이라고 인식 되는 관계는 매우 적은 편이고, 그러한 소수의 관계를 제외하면 양자 사이에 정립된 위계질서는 대체로 유대감(*solidarity*)의 요인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다. 한편, 주로 인척관계에서 나타나는 농담관계는 매우 편안하고 격의 없이 장난치고 농담하는 행위가 용인되는 소수의 특수한 관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관계에서는 존댓말을 비롯한 각종 행위의 위계적 규범들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엄격한 위계질서가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라면, 농담관계는 소수의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장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법들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사고방식 혹은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카작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qatarlı* “한 층의”, *žol taŋ* “길이 같다”, *ülken* “크다”, *kiši* “작다”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연배’, ‘동격’, ‘연상’, ‘연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인간관계를 묘사하는 이러한 표현들의 존재는 카작 사람들이 사회 성원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수직적으로 인식하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카작 사람들은 존댓말을 비롯한 각종 존경의 예법을 위반하는 것을 ‘수치(羞恥, *uyat*)’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가령 젊은이가 어른을 길에서 만났을 때, 혹은 어른이 손님으로 문을 열고 젊은이의 집에 들어 왔을 때 먼저 인사하지 않거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어른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너는 어디서 나왔느냐, 부모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어째서 인사를 올리지 않느냐?”라는 등의 꾸중을 하게 된다.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출 것을 훈련받는다. 특히 자식이 잘못된 존댓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무슨 공경이 되겠느냐(*qanday siy boladi?*)”, “수치 아니냐(*uyat emes pa?*)”라는 질책을 부모에게 듣고 올바른 존댓말로 교정을 받는다. 이러한 존경 예법의 강조와 그것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카작 사람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연장자를 공경할 줄 아는 인간형을 강조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카작 문화에서 존경 예법의 준수는 훌륭한 인격체로서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인 덕목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수치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카작 사회의 성원으로 그러한 존경의 예법을 숙달하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줄 하는 것은 문화적 능력, 즉 교양 및 품위의 척도가 된다. 이러한 점은 존댓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erke ösken* (버릇없이 자란)”이라는 평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연장자 공경과 공손함을 중시하는 카작족의 문화적 가치관은 카작족과 이웃하고 있는 한족에 대한 태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작족이 인식하는 한족은 카작족과 달리 웃어른을 그다지 공경하지 않고(*ülkenderdi anša siylamaydı*), 웃차림이나 집안정돈, 태도나 예의 등 남에게 보여지는 여러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엉망이고, 오로지 일과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카작 사람들 사이에서 “너 한족 놈이냐(*qıtaysıñ ba?*)”라는 말은 심한 모욕이 되는데, 그것은

대체로 “예의범절을 모르는 녀석”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살펴본
 왔듯이 존댓말 체계에서도 한어식의 친척호칭이나 직함들(*mama, jiejie, laoban, xiangzhang* 등)은 전통적인 카작어 친척호칭에 비해 낮은 말단
 계 표현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다 큰 아이가 부모에게 한어식의
 친척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듣기에 ‘흥하다’ 혹은 ‘추하다’(*sax*)라고 표현
 한다. 이것은 존댓말이 발달하지 않은 비교적 평등지향적인 언어인 한어
 와, 자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강조되는 한족 문화
 에 대한 카작 사람들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요컨대 존댓말을 비롯하여 정교하게 발달된 연장자 존경의 예법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카작 사회 및 문화의 여러 중요한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존경 예법들의 실천을 통해서 그러한 사회구
 조 및 문화적 가치관이 강화되는 것이다. 카작 사회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친척인지 아닌지, 윗사람인지 아랫
 사람인지, 그리고 농담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언제나 의식
 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행위 양식을
 선택하여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식과 능력은 카작
 사회에서 온전한 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자 도덕적 판단의 기준,
 즉 문화적 가치관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연장자 공경과 공손한 태도가
 강조되는 가치관 내지 사고방식은 다시 존댓말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행위를 지배하는 규범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카작어 존댓말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기술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카작어 존댓말이 지닌 구
 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용하
 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문화적인 규칙들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해당 문화의 사회 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의 체계를 밝혀내는 작업에
 있어서 사회언어학적 접근의 유용성을 재확인해 볼 수 있었다. 향후 좀
 더 장기간의 연구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관찰 및 면접을

실시한다면 존댓말을 포함한 카작족의 문화 유형 전반에 대한 좀 더 충실한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우진

2006 “중국 신강지역 카작족 존댓말의 구조와 사용 유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왕한석

1998 “로스앤젤리스의 초기 이주 한인의 언어접변”,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송현 이광규 교수 정년 기념 논총』, 서울: 집문당, pp. 445-470.

Bacon, Elizabeth E.

1966 *Central Asians under Russian Rule: A Study in Cultural Change*, Ithaca 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Benson, Linda and Ingvar Svanberg

1988 *The Kazaks of China: Essays on an Ethnic Minority*, Uppsala: Studia Multiethnica

1998 *China's Last Nomads: The History and Culture of China's Kazaks*, New York: M. E. Sharpe.

Bekturova, A. and Sh. Bekturov

1996 *Manual of the Kazakh Language*, Almaty: Rauan.

Brown, Roger, and Albert Gilman

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Style in Language*, ed. by Thomas A. Sebeok, Cambridge: The MIT Press, pp. 253

Ervin-Tripp, Susan

- 1972 "On Sociolinguistic Rules: Alternation and Co-Occurrence," In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eds. by John J. Gumperz and Dell Hym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Errington, J. Joseph

- 1988 *Structure and Style in Javanese: A Sociolinguistic Etiquett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Geertz, Clifford

- 1960 *The Religion of Jav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udson, Alfred E

- 1938 *Kazak Social Struc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Hymes, Dell

- 1962 "The Ethnography of Speaking," In *Anthropology and Human Behavior*, eds. by T. Glavin and C. Sturtevant, Washington, D.C.: Anthropological Society of Wanshington, pp. 13-53.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Ide, Sachiko

- 1982 "Japanese Sociolinguistics: Politeness and Women's Language," *Lingua* 57: 357-385.

Inoue, Kyoko

- 1979 "Japanese: A Study of Language and People," In *Language and Their Speakers*, ed. by Timothy Shope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241-300.

Johanson, Lars

- 1998 "The Structure of Turkic," In *The Turkic Languages*, eds. by Lars Johanson and Éva Á. Csató,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30-66.

- Johanson, Lars and Éva Á. Csató (eds.)
 1998 *The Turkic Languag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irchner, Mark
 1998 “Kazakh and Karakalpak,” In *The Turkic Languages*, eds. by Lars Johanson and Éva Á. Csató,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318-332.
- Krader, Lawrence
 1963 *Social Organization of the Mongol-Turkic Pastoral Nomads*, The Hague: Mouton & Co..
- Krippes, Karl A. (ed.)
 1994 *Kazakh(Qazaq) - English Dictionary*, Kensington: Dunwoody Press.
- Murdock, George Peter
 1934 “The Kazaks of Central Asia” In *Our Primitive Contemporaries*, by George Peter Murdock,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pp. 135-162.
- Poppe, Nicholas
 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Otto Harassowitz.
- Radcliffe-Brown, A. R.
 1940 “On Joking Relationships,” reprinted in *Structure and Function in Primitive Society* by A. R. Radcliffe-Brown, London &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52, pp. 90-104.
 1964[1932] *The Andaman Islander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Svanberg, Ingvar (ed.)
 1999 *Contemporary Kazaks: Cultural and Social Perspectives*, New York: St. Martin’s Press.
- Wang, Hahn-sok

1984 "Honorific Speech Behavior in a Rural Korean Village," Ph. D. Dissertation, UCLA.

Wolff, John U. and Soepomo Poejosoedarmo

1982 *Communicative Codes in Central Java*, Ithaca, New York: Southeast Asia Program, Department of Asian Studies, Cornell University.

<Key Words>: honorifics, Kazakh, China, Chinese, joking relationship, sociolinguistics, communicative competence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the Honorific Speech among the Kazakhs in China

Kim, Ugene*

Honorific speech has been of great interest among anthropologists and linguists because it implicates culture-specific knowledge of the society concerned. This paper attempts to describe honorific speech patterns of the Kazakhs in Xinjiang(新疆), China. Analysis presented in this paper is based upon the author's anthropological field research conducted for four months from April 16th to August 20th, 2005 in two Kazakh nomadic villages(Almalisay and Miñşunqur) located in Xinjiang.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linguistic repertoire of Kazakh honorifics is divided into 1) grammatical elements and 2) lexical elements. The former includes pronouns, possessive suffixes, and predicative suffixes; the latter primarily refers to a range of terms of address. The combination of these elements results in three speech levels (namely "level I⁺," "level I," and "level II"), which in turn constitute the basic structure of Kazakh honorifics.

* M. A. in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ctual utterance, one is required to know not only the structure of honorifics, but also the rules governing its usage in various social contexts. The social rules of Kazakh honorific usage are classified into 1) "general rule," 2) "supplementary rule," and (3) "manipulative usage" in this analysis. The first two rules indicate how various relations are defined and the appropriate speech level is selected accordingly. The "general rule" works in most types of social relations, while the "supplementary rule" applies when the participants of conversation are in the so-called 'joking relationships.' In addition to these two rules dealing with relational factors, "manipulative usage" accounts for honorific speech patterns affected by individual's intention and situational factors.

Honorific speech is a linguistic phenomenon that is closely integrated with Kazakh social structure and cultural values. Some of the salient structural features of Kazakh society, such as kinship organization, hierarchical order, and joking relationships, are rigorously observed in honorific speech. Furthermore, Kazakh honorific speech makes an important part of the cultural etiquettes of respecting seniors in the family and the society. Appropriate use of honorifics represents one's demeanor and refinement, and it is regarded as a basis of moral assessment. Honorific speech reflects and reinforces Kazakh cultural values that place great emphasis on modesty and respect toward elders.